

# 한전공대, 개교 일정 배격...특별법 대두

### 내년 3월까지 교사 사용 승인 받아야 2022년 3월 개교 가능

### 공기단축 위한 '설계·시공' 동시 진행...국가건축정책위 '제동'



한전공과대학 캠퍼스 가상 조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 중인 한전공과대학의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이 각종 심의와 규제, 더딘 진행 속도 탓에 삐걱거리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퇴임 전까지 계획한 한전공대 개교 일정이 목표에 맞추려면 각종 규제·심의 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한전 '내년 초개 1단계 설계 완료' 기한 내 준공 불가...임대교사 제안

한전은 지난 4월 '캠퍼스 종합계획(마스터 플랜)과 1단계 건축 설계 공모 마감'을 통해 디에이그룹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캠퍼스 건축물 디자인 콘셉트인 '에너지셀'의 형상이 딱딱하고 공간 간 소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3개월 간의 디자인 수정기간을 거쳐 지난 7월에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캠퍼스의 전체 시설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부지 면적은 38만4083㎡에 연면적은 24만501㎡이다.

당장 2022년 3월 부분 개교를 목표로 마스터플랜에 맞춰 진행될 '1단계 시설 건축설계'는 연면적 3만17㎡로 대학본부와 강의동, 데이터센터, 관리시설, 식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계 속도로는 내년 상반기거나 1단계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곧바로 착공을 해도 건축기간 만 31개월이 소요돼 목표한 개교 일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개교의 필수 조건인 '개교 1년(2021년 3월) 전까지 교사 면적 2만㎡ 확보'를 위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나주시 왕곡면의 혁신산업단지 에 건설 중인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1만7천㎡)'를 임대교사로 활용하는 안을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제안했다.

부족한 교사는 나주혁신도시에 한전공대 캠퍼스 본부지에

3000㎡이상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개교를 위해 필요한 최소 교사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선 대학의 본부지가 아닌 곳에 확보한 임대교사는 개교에 필요한 최소 교사 면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임대교사 활용 아이디어'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 ◇설계·시공 동시 진행 '턴키 방식' 적용...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제동'

1단계 캠퍼스 건축 면적(3만1000㎡)에서 개교에 필요한 최소 면적(2만㎡)만 따로 떼어 설계하고 모듈형 건축공법을 적용해 설계와 동시에 시공하는 이른바 '턴키방식' 도입도 심의에 발목이 잡혀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캠퍼스 건축사업 자료를 요구해 심의를 했다.

당시 국건위는 심의 의견을 통해 '설계·시공을 같이하는 턴키공법은 설계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국건위의 이러한 의견은 전남도에 1단계 캠퍼스 건축방안을 자문에 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의견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각에선 '강제성이 없는 심의 의견에 한전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2022년 3월 개교 실현 각종 장애물...특별법 제정 통해 극복

한전공대 설립의 한 주인공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각종 규제와 심의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목표한 개교 일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신 의원은 특별법안에 재정 확보와 예산 2022년 개교를 뒷받침할 특례규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한전공대는 2022년 완전 개교가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전도 특별법에 의한 캠퍼스 건축물 준공과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전공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가균형위 주관으로 열린 대학설립 기본계획 의결 회의에서도 짧은 공기를 감안해 건물사용승인서 제출시기 조정과 임대방식의 교사를 활용한 개교승인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동구, '무등산 테마열차' 시민들과 만난다

동구는 지난달 3일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지하철 1호선 1량 내부를 광주의 명산 무등산과 '추억의 충장축제' 이미지로 꾸몄다.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테마열차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호남 대표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마열차는 바다와 천장 등 차량내부 공간 전체를 무등산 사계(四季) 풍경과 거리퍼레이드 등 역동적인 축제 모습으로 랩핑한다.

### 서구,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 14개 업소 고발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 명령 기간 중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관내 유흥주점 14곳을 고발조치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수도권 클럽 확진자 및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의 2차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코자 유동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왔다.

### 남구 "민원서류, 1년 365일 야간에도 발급"

광주 남구는 27일 "관내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뚝 수 있도록 남구청 별관 1층 주차장 인근에 24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28일 오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구는 최근 구청 별관 1층에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버스 공간을 마련, 버스 내에 발급기 전용 CCTV를 비롯해 무인 경비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한 이유는 구청 본관 내부에 2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돼 있지만 남구청 사방호에 따른 출입문 통제로 야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북구, 광주 지역 대표 특산물 '무등산수박' 출하

광주 북구와 무등산수박생산조합은 지난 20일 첫 출하된 무등산수박이 오는 10월까지 금곡동에 위치한 무등산수박 공동직판장에서 판매된다고 30일 밝혔다.

'푸름이'라 불리는 무등산수박은 광주의 대표 특산물로 일반 수박보다 2배~3배가량 크고 성인병 예방과 당뇨에 특효가 있으며 해독작용이 뛰어나 명품 수박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9농가 3ha에서 1800여통이 수확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박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시험포를 운영하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과정, 재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 제출

광주 광산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한 1,245필지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접수 기간을 다음달 1~21일 운영한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6월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산구 홈페이지와 광산구청 1층 부동산 지적과에서 할 수 있다.

임형택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잠에서 깨어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건강보험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5분위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저소득층 1분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